

순천 분구... 광주·전남 국회의원 18→19석으로 늘어나나

뉴스 초점

여야 '4+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한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전남 순천시의 선거구가 2개로 분구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이 경우, 광주·전남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재의 18개에서 19개로 늘어나게 된다.

25일 '4+1'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 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전남 순천시와 세종시, 강원도 춘천시 등

을 2개의 선거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통폐합-분구 확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이를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4+1 선거법 통과 땀 인구 28만150명 순천 2개 지역구로 선거구 확정위서 결정 ... 지역균형 등 고려 유동적인 상황

이에 따라 전남 순천(28만150명)은 평균 14만75명 규모의 두개 선거구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으며 세종시(31만6814명)는 평균 15만8407명 규모의 두개 지역구로 나뉜다. 또 강원 춘천시(28만574명)도 평균 14만287명 규모의 2개 선거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기 군포갑(13만8410명)·을(13만8235명)은 합쳐져 27만6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안산시북갑(19만9211명)·을(15만6308명),

안산단원갑(16만17명)·을(14만4427명)은 평균 21만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또 서울 강남 갑(19만3376명)·을(16만321명)·병(18만8457명)의 경우 평균 27만1천77명 규모의 2개 지역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통폐합시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넘치기 때문에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여수 갑(13만5150명)은 여수

(14만7964명)과, 전북 익산시 갑(13만7710명)은 익산시 을(15만5491명)과 각각 구획 조정을 통해 현재 2개의 선거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점에서 변동의 가능성도 크다. 국회는 획정위에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확정한다. 특히, 영호남 등에서 지역구 의석 증감이 다르게 이뤄질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등 각종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순천시의 분구가 확정될 경

우, 호남에서 1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인근 지역구를 조정해 현재의 18석을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전체적인 전남 지역구 판의 지각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인구 상한선을 높여 순천시를 단일 선거구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종 선거구 획정은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순천시의 분구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특히, 지역구 증감은 영호남 등 지역적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팅장의 성탄절 성탄절 휴일인 25일 오후 광주시청 문화광장 내 야외스케이팅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팅을 즐기고 있다. 내년 2월 9일까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8시 20분까지 운영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해 넘기는 흑산공항 ... 주민 불편 방치 말라"

김영록 전남지사 정부·정치권에 관심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 재차 정부와 정치권에 편지를 보내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개발·보전 논쟁으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직면하면서 5년째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반영한 것으로, 4300여명 신안 흑산도 주민들이 수십년째 겪고 있는 불편함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3면>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0일 문화상 국회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서함문을 보내 흑산공항 조기 건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흑산공항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3년)에서 경제성을 확보했지만 환경부가 2015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결정된 이후부터 5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지사는 "흑산도 주민들은 지난 1981년 섬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38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며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아 들팔을 보러 가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또 풍랑이 배가 끊겨서 육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견뎌왔다"고 썼다. 흑산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정부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관광재단' 설립 탄력 붙었는데 ...

행안부 심의 의결, 광주관광재단과 통합 검토 조건에 '난감'

전남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남관광재단' 설립에 탄력이 붙었다. 다만, 정부가 광주관광재단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건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남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해 조건부로 의결했다. 풍부한 관광자원에 비해 관련 인프라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의 상황에 비해 체계적인 관광산업 개발과 통합마케팅을 추진할 전남조직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게 심의위측 입장이다.

심의위는 그러나 일부 미진하거나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후 보완·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답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광주관광재단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짚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현재 설립을 준비중인 광주관광재단과의 통합 운영 방안을 고려하라는 게 심의위 조건이다. 지역 대표적 관광상품 할인카드인 남도패스의 경우 광주·전남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설립 추진과정에서 광주관광재단과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이 때문에 전남도가 광주와의 협의 없이 재단 설립을 추진할 경우 자칫 광주관

광재단 설립을 위한 광주시의 행안부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양측이 기존 문화 중심 조직인 전남문화관광재단이나 광주컨벤션뷰로 등의 축소·정산 등을 거쳐 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데다, 관광자원·인프라·관광정책 추진 방향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괄적인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 자칫 상생발전이 아닌, 갈등 요소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시선이 감지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전남도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행안부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재단설립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 7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관광재단 규모, 예산 수익분석 검토 등을 담아낼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ONE-STOP 창업지원센터

친환경양식 기술이전교육
ONE-STOP 창업지원 컨설팅
친환경 양식업체 모니터링 지원
양식장 심화교육
기술교류 워크숍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2017~2019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ONE-STOP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53명(20%)이 양식장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흰다리새우	58	3	47	9	52	9	157	21
큰장게미새우	35	10	42	12	27	10	104	32

양식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드립니다!!

- 1**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 및 내수면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4 넷,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2** 배우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5 다섯,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 3** 귀어·귀촌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어·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